이른 時期에 있어서의 韓中 言語 接觸의 一斑에 對하여

金 完 鎭

(西江大學校)

I

韓漢 두 民族의 接觸의 歷史가 어느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가는 現在의 우리 知識으로선 어림잡기조차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率直한 告白일 것이다. 어쩌면 言語들의 分化以前(이것은 兩쪽에 같이 適用될는지도 모른다.)에까지 거슬려 생각해야 할 問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史籍의 證言을 期待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現在의 이 작은 作業이 意圖하는 것은 이른바 國語漢字音[1]의 體系가 成立되기 以前에 있어서의 借用 關係를 追求하는 일이다[2]. 따라서 漢字語라고 一般的으로 알려져 있는 部類의 것들은 國語側의 資料에서 除外되는 것이며 흔히 國語 固有의 資產으로 看做되는 語詞들 中에서 資料를 選擇하게 된다. 또한 國語漢字音 成立 以前이라는 條件을 充足시키기 爲해서는 國語漢字音의 體系에 反映되어 있지 않은 中國語 上古音 또는 太古音의 特徵에 重點을 두고 考察을 進行하는 것이 穩當한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主로 *-b, *-d, *-g 또는 *-r 따위 이른바 陰聲類의 末音이나 去聲을 爲해서 再構되는 *-s 같은 것에 重點을 두고자 한다.

하기는 이렇게 이른 時期에 있어서의 借用 關係를 叙述함에 있어, 어느 편이 借用主이고 어느 쪽이 그 借用語를 提供해 주었는가 하는 問題는 그리 簡單히 透視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니다. 後期의 漢字語들이 一方的으로 中國語로부터 氾濫해 들어 왔던 것처럼, 앞선 時期에 있어서도 우리가 中國語로부터 借用만 하고 있었다고 斷定할 根據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古代의 中國語쪽에서 借用해 간 것이 아닌가 하는 心證을 주는 例들이 存在하는 것

---

[1] 近年에 와서 國語 漢字音에 對한 硏究가 活氣를 띠고 있는 것은 慶賀할 일이다. 韻書類에 對한 硏究를 除外하더라도 相當한 量에 達한다. 筆者가 閱讀한 것은 그中의 一部일 것이나, 다음의 勞作들은 筆者가 直接 間接으로 參照한 것들이다.

南 廣祐, 「東國正韻式 漢字音 硏究」 1966.

南 廣祐, 「朝鮮漢字音硏究」 1969.

南 豐鉉, 『15世紀 諺解文獻에 나타난 中國系 借用語辭 考察』 「국어국문학」 39. 40호.

俞 昌均, 『現代韓國漢字音의 性格과 體系』 「明大論文集」 第一輯, pp. 205-25.

梁 柱東, 『國史 古語彙 借字 原義考』 「明大論文集」 第一輯, pp. 59-104.

[2] 國語音韻史上의 變化, 이를테면 "ㄷ"의 口蓋音化라든지, 特定 條件下에서의 "ㄷ>ㄹ" 따위를 모두 捨象한 體系를 意味한다.

이다. 最近의 中國語史 硏究는 古代의 中國語가 周圍의 諸民族에게 많은 語詞들을 提供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相當한 外國語 單語들을 吸收했음을 證言하고 있다. 筆者가 이 小稿의 標題에서 "借用"云云의 直接的인 表現을 避하고 "言語接觸"이라는 迂言的인 表現을 擇한 것도 實은 이런 事實에 말미암는다. 語詞 借用의 主從 關係는 當該 民族들의 文化 其他 여러가지 條件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이지만, 副次的이라 할 수 있는 이런 條件의 追求에의 執念은 避하고, 다만 接觸의 事實 自體를 確認하며 言語上으로 浮刻되는 現象을 摘記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더 없는 滿足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른 時期"라는 表現도 大端히 漠然하게 들릴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에 대충 어느 때라고 年代를 짚어 말한다는 것도 힘에 겨운 일이거니와, 꼭 그런 相對的 年代를 밝혀야 할 理由가 적어도 現在의 作業에서는 切感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다룬 資料들만 하더라도 그 借用의 年代가 充分히 一千年이나 二千年은 서로 다를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借用의 經路로 말하더라도 漢字를 隨伴해서의 借用과 그렇지 않고 純全한 口頭로서의 借用의 差가 있었을 것이다[3]. 그 밖에도 方言의 問題等 精密 作業에서는 宜當 다루어져야 할 條件들도 許多할 것이나, 現在의 우리 段階에서는 그런 面에 깊이 關與할 수 없을 때가 많다.

漢字를 隨伴한 借用이 이른 時期에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들이 現在의 "國語漢字音"의 體系밖에 선다는 것은, 곧 이른 時期에 있어서 적어도 또하나의 漢字音 體系가 存在했을 것을 想定케 해 준다. 이러한 말하자면 第二의 漢字音 體系는(兪 昌均 敎授가 正音, 俗音과 區別하여 化石音이라는 재미 있는 命名을 하고 있다. 前揭 論文을 參照) 그 全般을 우리가 再構해 낸다고 하는 것은 至難한 일이지만, 그 存在 自體를 確認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現行 國語漢字音의 體系와 다른 漢字音의 體系가 國語의 이른 時期에 存在했다는 것은 中國語의 上古音이나 太古音을 基準으로 해서 韓·中 두 言語의 接觸을 論하려는 現在의 作業에 매우 有利한 뒷받침이 되는 것이다.

鄕歌의 境遇만 하더라도 慣習的으로 所謂 古音으로 읽고 있는 것들 外에 現行 漢字音의 體系와의 사이에 많은 乖離를 보이는 用例들이 發見되는 것이다[4]. 別 分別 없이 現行 漢字音에 依支하는 일이 많았던 鄕歌 讀法에도 한 反省의 契機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假令 紙寘 三等韻의 境遇만 하더라도 母史, 无史, 栢史, 兒史, 歲史의 例들에서 現行 漢字音의 特徵을 이루는 母音 "ㅇ"를 가졌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또 "米"字의 境遇는 -m+ʌi 또는 -m+ai로 읽힐 자리에 쓰이고 있어 -m+i(主格)"未"의

---

[3] 假令 같은 佛語로부터의 借用인 英語 單語에 example (Fr. exemple)과 함께 exemplify (이것은 spelling을 通해서 받아 들인 學者語)가 있음은 有名한 例이다.

國語에도 亞片(=鴉片)에 漢字語로서의 「아편」과 中國音을 反影해 주는 「야편」 또는 「얘편」의 두가지 語形이 있다.

[4] 이러한 事實에 對해서 우리의 先學들이 全혀 無關心했다는 뜻은 아니다. 旅(=彌)字의 境遇처럼 分明히 指摘된 것들도 있고, 或은 解讀 態度에서 그와 같은 暗示를 찾을 수도 있다.

河野六郎, 『朝鮮漢字音의 硏究』(日文) 「朝鮮學報」 第31輯 p. 19에 이에 關係되는 言及이 있다.

境遇하고는 區分되고 있으나, 現行 國語漢字音은 이 두字 사이에 區別을 두고 있지 않다. 鄕歌表記 時代의 "米"字의 音은 오히려 *miər/miei:/mi (B. Karlgren에 依함)의 第二段階音을 基準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具體的인 音韻形態의 再構는 또하나의 다른 課業이겠지만).

理想的으로 말한다면, 지금 試圖하는 것과 같은 作業은 國語史와 中國語史 兩쪽에, 特히 音韻論面에서 貢獻할 것이 期待되는 것이지만, 지금의 形便으로는 特히 筆者 自身의 中國語音韻史에 對한 知識의 制約으로, 後者에 對한 過慾은 삼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筆者에게 慾心이 許容된다면, 資料의 缺乏으로 허덕이는 國語史의 古代 部分 乃至 史前時代의 硏究에 制限된 領域이나마 새로운 可能性을 開拓해 보려는 뜻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는 極히 少量의 語詞만을 對象으로 삼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두 言語사이의 語詞 借用이 이른 時期에 있어서 그렇게 微微한 分量에 그쳤다고 하는 示唆로 받아 들여 질 수는 없다. 그 音韻構造의 無特徵性[5]으로 해서 所謂 後世의 漢字語의 무덕이 속에서 識別해낼 수 없는 이른 時期의 借用語들이 相當數 있을 것은 짐작키 어렵지 않다. 또한 中國語 音韻論에서 有力한 學說들 사이에 相當한 徑庭이 있어 그 當否를 가름하기 어려울 때, 筆者로서는 그런 部類의 資料들은 一旦 敬遠하지 않으면 안되는 苦衷이 있었다. 따라서 現在의 作業은 比較的[6] 無難하고 安全해 보이는 語詞들에 局限함으로써, 이런 類의 作業의 可能性을 打診해 보는 試圖에 그치게 되는 것을 스스로 허물하지 않는다. 標題의 "一斑"으로 그 微衷을 나타내고자 했다.

Ⅱ

1. 부텨(佛) : 佛陀

"부텨"라는 語形은 鮮初의 佛敎 文獻들에 無數히 存在하는 것이거니와, 이미 鄕歌時代에도 그러한 語形을 보여주고 있다.

佛體前衣 (禮敬諸佛歌)

말할 것도 없이 이 單語는 佛敎의 東漸과 함께 들어 온 것이겠는데, 梵語의 Buddha에서 直接 說明하기에는 母音 特히 第2音節의 그것에 難點이 있다. 또 넓게 말해서는 佛敎의 傳來過程에서 中國語를 거치지 않고서 우리 말에 直接 들어 올 수 있었던가 하는 疑問이 있다. 이런 點들을 勘案하여 筆者는 Buddha의 中國側 音譯인 佛陀에 '부텨'의 起原을 求한다. 勿論 우리에게도 漢字語로서의 佛陀는 있다. 따라서 이 '佛陀'가 書籍을 通해서 僧侶 乃至 學

[5] 이른 時期의 借用語로 判斷할 音韻論的 特徵의 缺如를 말한다. 그러나 그와 同時에 이른 時期에 있어서의 借用이 될 수 없다는 證據도 發見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現在의 作業 自體가 出發부터 冒險的인 것이고, 資料가 文證을 通하는 것이 아니니까, 安全이니 無難은 極히 相對的인 表現이다.

者의 손으로 輸入된데 反하여 '부텨'쪽은 '佛陀'가 純粹히 發音上으로——即 그러한 漢字들을 떠나서——흘러 들어 온 結果라고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는 于先 前者가 學者語이고 後者가 普遍化된 民衆語(이런 表現이 許容된다면)라는 事實로만 미루어 보더라도 一旦은 合當한 態度라고 認定될 것이다.

'佛'字는 符弗切 臻攝 物韻 合口 三等韻의 入聲字로 奉母에 屬한다. 따라서 그 古音은 b'juət이다. b의 有氣音 與否는 異論이 없는 바도 아니지만, b對b'의 音韻論的 對立이 無聲音의 境遇와는 달리 缺如되어 있고, 거기다가 中國語의 帶氣는 奇妙하게도 國語漢字音의 體系에 있어서도 어림잡기 힘든 反映을 보이는 것이므로 깊이 追求할 性質이 못된다.

合口의 三等韻 juət가 母音 '우' 即 ü로 받아 들여진 것은 매우 合當한 일이며, t' 앞에서 t가 省略된 것은 古代 國語에서의 音韻 結合의 한 側面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復合語 '모자라다'(不足)의 形成에서 '몯'+'자라다'가 分明하건만, 'ㄷ'은 자취를 감추는 것과 同列의 現象일 듯하다.

따라서 '부텨'라는 語形의 特異性은 '텨'가 '陀'에 對應된다는 點에 있다. 陀는 開口의 歌韻으로 即 一等韻으로서, 介母 j 또는 i의 介入을 許容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音韻의 介入이 國語 音韻構造에 緣由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더욱 어렵다.

可能한 解釋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古代 中國語 方言에서 '陀'字가 介母를 가졌을 可能性의 追求겠다. 陀字가 俗字로 '陁'라 쓰이었던 것이 그런 事情의 反映이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 也 또는 他는 它와는 달리 主로 ia音을 나타내는 데 쓰인 字였으니까.

滿洲語에서 부처를 指稱하는 語詞가 fucihi로 나타나는 것도 '부텨'의 경우와 類似한 事情에 말미암는 것일지 모르겠다. (-ci-는 *-ti-에 遡及할 것이다).

一旦 介母의 問題만 解決되면, 그 다음은 簡單하다. *t'ia>*t'ja>t'je. 國語의 音韻構造上 t'ja가 許容되지 않으면 t'je 即 '텨'가 될 수 밖에 없다.

日本語의 該當 語詞가 hotoke라는 色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借用의 바탕이 된 中國 方言의 差異에 基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勿論 第三音節의 -ke는 日本語 特有의 接尾辭임에 틀림 없다. (cf. hata: hatake=畑 : 畠)

土·蒙系의 burqan은 bur+qan으로 佛陀나 Buddha라는 非省略 語形과는 距離가 있다. 佛이라는 略稱에 類似한 모습을 發見할 수 있으나, 漢字 佛과 關聯시키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末音 -t의 問題도 있거니와 Uigur 地方으로의 佛敎 轉播는 다른 經路에 依하였을 公算이 크다.

2. 힝·뎍 : 行跡

李 熙昇編 국어대사전에는 "행적[2]"의 項目에 行積, 行蹟, 行跡을 並記하고 있는데 積·蹟·跡 어느 字를 莫論하고 國語漢字音 體系에서 그 頭音이 t에 遡及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月印釋譜 卷一에

梵은 조ᄒᆞᆫ ᄒᆡᆼ더기라 ᄒᆞᆫ ᄠᅳ디니

라고 한 것을 爲始하여 같은 語形이 여기 저기 쓰인 것을 알고 있다. 訓蒙字會 같은 데에서 行字의 訓으로 '힝덕'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 相當히 普遍化되었던 單語임을 알 수 있겠거니와, 그 意味를 確認할 수 있게도 해 준다.

績·蹟·跡은 淸昔 三等韻으로 精母에 屬한다. 四等韻으로 端母의 的·滴·嫡따위만이 國語漢字音에서 '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요, 前記 精母의 字들은 '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南 廣祐 敎授의 勞作「東國正韻式 漢字音 硏究」는 廣範圍한 調査로 東國正韻 漢字音과 現實 漢字音의 對照表를 보여 주고 있는데[7], 그 246面에 迹, 跡·積의 漢字音이 東國正韻式으로나 現實音으로나 모두 '·젹'으로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唯獨 蹟字를 골라 244面 端母의 字들인 滴·嫡·適·的 等의 틈에 넣어

蹟 : 힝·덕 釋譜 9:6 ·덕 飜小 8:1이라 한 苦衷은 十分 理解되나, 都是 '힝덕'의 '덕'은 이런 種類의 漢字音 隊列에서는 除外될 存在였다[8].

精母의 ts는 *st로 遡及하는 것으로 解釋되고 있지만, 行跡이라는 熟語의 性格으로 보나 中國語에서의 *st>ts의 時期로나 直接 太古音의 *st가 '덕'에 反映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跡, 蹟字가 頭音 'ㄷ'으로 받아 들여질만한 特徵을 가진 中國語 方言이 存在했던 것이나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나 確言할 길은 없다.

古代 國語에서의 特殊한 音韻論的 事情에 歸結시키기도 어려운 一種 神秘에 싸인 化石語라고나 할까. 그러나 한가지 確實한 것은 '힝덕'이 分明 國語漢字音體系 以前의 某種의 事情을 反映하고 있다는 點이다.

3. 적, 제 : 時

B. Karlgren[9]에 依하면

時 *d̂iəg/źi/shï time으로 太古音의 音相과 '적'을 對應시킬 수 있는 것은 매우 興味로운 일이다. 이른바 陰聲의 *-g는 그 消滅過程에서 -i로의 轉移를 나타내는데, '제'는 時期的으로 '적'의 다음 段階에서의 借用일는지 모른다. G.J. Ramstedt는 古代에 '적~작'의 變形이 存在했을 것을 推想하고 있는데, "……할작시면"의 例로 보아 可能性 있는 見解로 생각된다. 土耳其語의 čaq 蒙古語의 čaγ과의 對應을 念頭에 두고 한 말인데,[10] 中國 古音의 ə가 다른 言語에 依해서 a로 받아 들여지는 일이 많음 (여기 對해서는 Pulleyblank의 指摘이 있다)을 考慮하면 더욱 首肯이 간다.

---

[7] "5. 東國正韻式 漢字音과 二期漢字音과의 比較"라는 題目으로 長長 그 221面으로부터 313面까지에 이르는 尨大한 量의 것이다. 지금의 筆者는 一一히 記錄하지는 않지만, 이 表를 參照하여 입은 바 便宜가 많았음을 記하여 두고 싶다.

[8] '힝뎍'이 東國正韻式 漢字音일 수는 더욱 없다. '힝더글'이 나오는 釋譜詳節 第九卷 6面에 바로 이웃하여 '行ᄒᆞᆯ씨오'의 行字는 'ᄒᆡᆼ'이라 音註되어 있다. 이것이 東國正韻式 漢字音임은 自明하니까.

[9] B. Karlgren, *Grammata Serica Recensa* Stockholm, 1964.
筆者가 Karlgren의 再構形을 보일 때에는 主로 이 著書에 依存한다.

이 語詞의 借用은 매우 이른 時期, 어쩌면 共通祖語의 時代에 이루어졌을는지도 모르겠다.[11]

4. 석(집세기) : 屣

*ṣi̯ég/ ṣie:/ si sandal

國語에 '집세기'의 '석'으로 남아 있는 것, 그리고 古記錄의 '洗具'가 여기 對應될 것으로 믿는다. 勿論 爲 *ṣi̯ăk/ṣi̯ăk/si slipper, shoe, sole 쪽의 可能性을 完全히 排除하지는 않는다.

여기 兼하여 다음 對應의 可能性을 5로 追加해 두겠다.

5. 격지 : 履

履 *kiok/ki̯ak/küe straw sandal

또는

屐 g'i̯ɐk/ki

이 漢字들의 現行音은 '극'이다. '격지'의 '지'는 '-子'에 該當할 듯하다.

6. 자 : 尺

尺. *t'i̯ak/tś'iäk/chï

'자'(尺)는 그 變化形에서 ㅎ末音을 보여 주는 單語로 (例 자히……等) 그 '尺'과의 對應에 古代 國語(이런 경우 國語史에서 古代와 史前을 區別하여 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의 어느 段階에 末音 k가 어떤 條件下에서 h로 부서져 나간 것을 推定케 한다. '자'에서 派生된 動詞 '재다'에 보이는 特異한 派生法은 後述할 다른 單語에도 보인다.

7. 쇼 : 俗

前條에 平行되는 例로서 僧에 對한 '쇼'를 들 수 있다. "중도 소괭이도 아니다"라는 俗談에 보이듯 '중'에 對立되는 槪念을 나타낸다. '중'은 僧伽(Saṅgha의 音譯)의 漢譯인 衆字에서 온 것일까 생각되기도 한다.

8. 뎌 : 笛

이것도 ㅎ末音을 가진 것으로 같은 範疇에 屬한다.

9. 쇼 : 褥

'쇼흘'等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도 ㅎ末音을 가진 語詞인데, 褥字가 日母에 屬한다는 事實은 7의 俗이 邪母에 屬하는 것과 견주어 볼 때 매우 特徵的인 일이라 하겠다. 邪母系(即 z 頭音)의 字들이 心母(即 s 頭音)의 字들과 함께 s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反面, 日母가 'ㅿ'로 되어 있다는 것은 國語音韻史에 매우 重要한 情報를 提供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或 粟字도 '조'와 關聯시킬 可能性이 있어 보일는지 모르나, 지금 形便으로는 粟과 같은 心母의 字가 'ㅈ'頭音으로 받아 들여졌다고 하는 根據를 대기 힘들다.(慫 字가 '종'으로 읽히는 것은 從字에 對한 類推가 아닐까 여겨진다)

10. 뎔(佛寺) : 邸

佛刹은 梵名 kṣetra로 '刹'은 略化된 音譯이다. 或 '뎔'의 語源을 刹에 求할 수 있을 듯

이 보일지 모르나 그 頭音에 難點이 있다. 또는 日本語 tera 와의 聯想 아래 kṣetra 의 -tra 에 그 起原을 求할 수 있을 것 같이도 보이나, 한 單語를 반토막 쳐서 그 머리도 아닌 꼬리 部分만을 받아 들였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노릇이다.

이에 筆者는 마치 漢字의 寺字가 本來는 佛字의 뜻이 아니었던 것처럼, 元來는 '큰 建物'을 뜻하던 '덜'이 後에 佛敎의 隆盛과 함께 佛寺를 意味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邸는 陰聲 末音의 字로 Karlgren 에 依하면 *tiər 이다. 末音 *-r에 對하여는 中國 音韻學者들 사이에 意見의 差가 꽤 있다. 即 學者에 따라 *-r 로 推定된 것이 *-d 가 되어 있기도 하고 反對의 境遇도 또 있기 마련이다. (例컨대 Karlgren 과 董同龢) 甚至於 Pulleyblank[12] 같은 사람은 *-r 을 否定하고 *-δ 를 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設令 이 경우 *-r 이 아니고 *-δ 였다 하더라도 現在의 '덜'을 爲始한 우리의 課題에 있어서는 큰 困難을 惹起하지는 않는다. 末音으로서의 r, l 을 가지지 않은 言語의 末音 δ 가 r 로 받아 들여졌다 해도 크게 拘碍받을 것은 없겠기 때문이다. 便宜上 여기서는 그대로 Karlgren 을 따르기로 한다.[13]

11. 예(倭) : 倭 또는 夷

바로 위에서 論議한 境遇와 같이 核心은 다시 末音 *-r 에 있다. 倭·夷 兩者가 모두 *-r 로 遡及될 것으로

倭 *ʼi̯wăr/ʼjwie/wei

夷 *di̯ər/i/yi

이다.

한편 國語에서의 倭字의 古訓은 "예"인데, 鄕歌에서는 이 單語가 r 音을 介在시키고 있었던 것을 보여 준다.

倭理叱軍置來叱多 (彗星歌)

마치 내<나리(川), 뉘<누리(世)의 경우들처럼 V+r+i 의 環境下에 r 을 喪失한 範疇에 든다 하겠다. 倭字의 太古音과의 對應에서 우리의 jei<*jeri 는 音相과 意味에 걸쳐 無難할 것으로 생각된다.

12. 살 : 矢

矢 *śi̯ər/śi/shï arrow

---

[10] G.J. Ramstedt, *Studies in Korean Etymology*. Helsinki, 1949. p. 27.

[11] O. Pritsak 敎授는 čaq, čaγ 에 對하여 '昨'字를 示唆한 바 있으나 意味面으로 難點이 있어 보인다.

[12] E.G. Pulleyblank, "The Consonantal System of Old Chinese" Part II. *Asia Major* 9. pp. 206-65 1962. p. 215.

[13] Karlgren 이 *-r 을 擇한 理由는 그의 *Compendium of Pohnetics in Ancient and Archaic Chinese*. Stockholm,1954. p. 301 에 다음과 같이 提示되어 있다.

……The choice is then between -r and -l. The former is more convincing, in the light of some transcriptions: when, in early Han time, the Chinese first became acquainted with lions, they called them 獅, homophonous with our 66m 師, Anc. śi and this, according to our reconstruction here, will be Arch. *śi̯ar, which obviously renders the well-known Indo-Iranian word for ≫lion≫.

13. 절-(鹽浸) : 齍

Karlgren 은 齍字를 554j 와 555k 에서(番號는 그의 *Grammata Serica Recensa* 의 것)

*tsiər/tsi:/tsï to pickle

로 動詞形을 보여 주고 있거니와, 다시 거기 該當하는 名詞形으로 다음의 例를 보이고 있다.

593 t 齍 *tsiər/tsiei/tsi pickled food. '짠지' '신검지'等에 나타나는 '지'는 여기서 中古音 또는 近世音에 近似하거니와, 意味上으로도 問題가 없겠는데, 이 漢字들의 太古音이 '절다, '절이다'의 語幹 '절-'에 對應됨은 興味롭다. '절여진' 當體로서의 '젓'은 文證은 없으나, 'ㄹ'을 가졌을 것으로 推測된다. 即 젓<*čers 또는 *čerč.

14. 절 : 祗

祗 *t̂i̯ər/tśi/chï to reverence

'절'과 '祗'는 名詞와 動詞라는 差異를 除外하고는 그 音相과 意味에 걸쳐 잘 對應된다. 意味上의 制約 때문에 謙讓法으로만 存在하는 '저습-'의 '저-'는 이 名詞의 動詞形으로 생각된다.

15. 톳기 : 兎

兎 *t̂'o/t'uo-/t'u hare

Karlgren 에 依하면 開音節로 再構되어 있으나, 董 同龢[15] 그 밖의 사람들은 이 部類의 것들을 *-g 로 處理하고 있다. 그리하여 一旦 兎에 對하여 *t'og 을 얻게 되는데 다시 注目해야 할 일은 이 字가 去聲에 屬한다는 事實이다. 去聲字들은 本來 末音으로 *s 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推定되므로[16] 結局 *t'ogs 또는 *t'ogz 에 遡及케 된다. 이 語形은 語末 部位에서의 子音間의 轉位가 發見되기는 하지만 國語의 '톳기'와 잘 對應되는 모습을 呈示한다.

비슷한 方向에서 考察할 수 있는 것들로 다음의 두 單語를 들 수 있다.

16. 갓 : 芥

17. 又(邊) : 界

前者는 *kăd/kăi-/kie mustard plant

後者는 *kåd/kăi-/kie boundary

于先 意味面에서 탓할 곳은 없고, 音聲面에서는 둘다 去聲이라는 點이 特徵的이다. 따라서 Karlgren 의 再構形을 基礎로 한다면 各各 *kăds, *kåds 或은 *kădz, *kådz 가 될 것인데,

---

[14] 筆者는 古代 國語에서의 *-rč 에 對해서 論한 바 있다.
拙稿, 『高句麗語에 있어서의 t 口蓋音化現象에 對하여』「李崇寧博士 頌壽紀念論叢」所收.

[15] 그의 漢語音韻學, pp.272—9 參照.

[16] 都賴 : Talas 等의 外國語 轉寫外에 티베트語와의 比較에서 티베트語에서의 -s : -φ 의 對立이 中國語에 와서는 去聲 對 非去聲의 對立으로 나타나는 것 따위가 擧證된다.
Pulleyblank 는 op. cit. p. 221 에서 Though final *-s, postulated as the source of the falling tone,… 云云하고 있다.

여기서 '갓' 'ㅈ'의 末音 'ㅅ, △'의 差異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가를 말하기에는 資料의 制約이 너무 크다. 或 借用의 時期가 달랐던데 基因하는 것일지 모르겠다.

母音에 對해서는 Karlgren의 ă, â가 各各 '아' 'ㅇ'로 差異를 呈示하고 있는 것이 指摘해 둘만한 存在라 하겠다.

18. 붇 : 筆

사람들이 '먹'(墨)과 함께 가장 즐겨 膾炙해 온 짝이다.

筆 *pli̯ət/ piet/pi writing pencil

現代語에서는 '붓'이 末音 'ㅅ'을 가지고 있으나, 中世國語에서는 'ㄷ'末音을 가졌었다.[17] '붇>붓'에서 보는 것과 같은 變化는 '벋'(朋友), 'ᄠᅳᆺ'(意思, 意味) 等이 各各 '벗' '뜻'으로 바뀐 例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못 廣範圍하게 일어났던 現象이다. 元來 訓民正音時代에는 'ㅅ'이 末音에서도 [s]로 實現되어 'ㄷ'과는 區別이 分明하던 것인데, 이 두 音素의 對立이 末音의 位置에서 오늘날과 같이 中和되게 됨으로써 일어난 存在로 理解된다. 勿論 現代語에는 '맏' (伯)처럼 末音 'ㄷ'을 維持하고 있는 名詞도 있다. (日本語의 hude '筆'을 聯想하더라도, 國語의 '붇'이 借用語일 可能性은 充分하다.)

書寫에 關係되는 單語로 이 밖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檢討할 수 있을 것이다.

19. 먹 : 墨

墨 *mək/mək/mo

이 漢字의 現行音 '묵'(<믁)과의 사이에 母音의 差異를 보여 주는데, 그 差異가 中國語쪽의 變化에 따른 것인지(Karlgren이 Archaic과 Ancient에 걸쳐 ə를 보여 주고 있기는 하지만) 國語 母音體系의 問題로 受理할 것인지는 斷定하기 어렵다.

20. 적-(記) : 志, 誌

두 漢字가 모두 "Record"의 뜻을 가진다.

*ĩi̯eg/tśi-/chï

意味와 音相에 걸쳐 無理 없는 對應이 成立된다. 다만 去聲字들인데도 *-s의 痕跡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 單語의 借用 時期를 말해 줄 可能性이 크다. '字'字(*dz'i̯eg/dzi'-/tsï)는 같은 槪念의 名詞이겠다.

21. 닥 : 楮

Karlgren을 따르면

*t'io/t̂'i̯wo:/ch'u and *to/tuo:/tu paper-mulberry tree

라고 했으나, 이 경우에도 *-g 末音을 追加할 性質의 것이므로 *t'iog 또는 *tog이 再構되는데, 이것은 닥<*독에 알맞는 音相이다.

---

[17] 붇 爲筆 (訓民正音 解例, 用字例)

22. 스-：書

書字도 楮字와 같은 部類에 屬하여

*śi̯o/si̯wo/shu write

를 보이는데, *-g를 '스-'속에 反映하지 않는 것이 楮와 다른 點이다. 志, 楮 等보다 借用時期가 늦었기 때문에 생긴 差異로 理解된다.

23. 곰<고마：熊

熊 *gi̯um/jiung/hiung a bear

圓唇母音에 後續하는 唇音 m이 異化作用을 일으켜 다른 種類의 鼻音으로 變化했다는 것은 이제 中國語 音韻論에서 널리 알려진 事實이 되었다. 어떤 語詞가 이 範疇에 屬하여 *-m으로 遡及될 것인가에 對해서는 學者들 사이에 意見의 一致를 보기 힘들지만, Karlgren 以後 많은 사람이 熊字를 그 部類의 代表格으로 내세우고 있다. 받침으로 쓰인 '炎'字가 더 할 수 없는 뒷받침이 된다. '곰'은 韓日 두 言語 사이에서 動物 名稱으로는 드물게 完璧한 對應을 보이는 語詞이기도 한데(國語 kuma=日語 kuma) 이 動物 名稱은 中國語 쪽이 借用해 간 경우가 될 可能性이 크다.[18] 即 kuma라는 二音節語를 單音節로 消化했을 것이 推定된다.

24. 거위 <*거루 또는 *거로：雁

漢字에는 기러기 乃至 거위를 나타내는 字들이 몇개 있다. 언제부터 東北 亞細亞의 住民들이 이 鳥類를 家禽化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畢竟 애초에는 같은 이름으로 불리웠을 것 같다. 雁과 鵝字에서 우리는 같은 頭音 *ng-를 보거니와 母音도 類似하다.

筆者의 생각으로는 本來 알타이語 쪽의 *gar 또는 *qar 系 語詞의 借用이 雁 또는 鵝로 結果되지 않았나 싶다.

ma. garu<*kara-gū 'Schwan', ew. gāre̥<*kāra id.=tsch. χur<*qar 'Gans' jak. χās id. AT. qaz<qāz<*qār² id.[19]

여기에 日本語의 kari(雁) 그리고 國語의 '거위'가 追加될 수 있겠는데, 國語에는 新羅 地名에 浮刻된 '居老[20]'라는 先行語形이 있다.

그러면 雁의 -n과 알타이語들 쪽에서 그에 對應하는 -r과의 關係는 어떠한가? 末音 -n의 問題는 Pulleyblank가 前出論文에서 가장 心血을 기울여 追求한 課題中의 하나로 그의 論理는 매우 合理的인 것으로 여겨진다. 即 Pulleyblank에 依하면[21], 中國語에는 *-l과 *-n

---

[18] 梅 祖麟 敎授의 말에 依하면, 中國 史籍에 나오는 韓國 出身들 가운데 熊氏姓의 사람이 많다고 한다. 羊을 길러 羌이라 불렀던 西藏 쪽에 姜氏의 起原을 찾는 일을 想起케 해 준다.

[19] N. Poppe, *Vergleichende Grammatik der Altaischen Sprachen, Teil* 1, *Vergleichende Lautlehre*. Wiesbaden, 1960. p.120.

土耳其語가 보여 주는 *qār>*qar>qaz의 이른바 rhotacism의 問題는 lambdacism과 함께 알타이語學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現象의 하나다.

[20] 어떻게 해서 "居老"로부터 '거위'까지의 發達을 說明할 수 있는가는 매우 重要한 課題이나, 이는 純粹히 國語 안에서의 問題로 여기 直接 關聯되지는 않는다.

[21] Op. cit. p.228 以下를 參照.

의 差異가 詩經時代에는 勿論이고 諧聲時代에조차 그 痕跡을 찾을 수 없을만큼 아득한 옛날에 消滅되어 하나의 音素로 融合된 것으로 解釋케 된다. 따라서 外國語의 -n 音이나 -l 音은 다 같이 -n 으로 轉寫되었던 것이라고.

即

安敦 ˙antuən=Anton(ius)

安息 ˙ansi̯ək=Aršak

敦煌 tuənĥwaŋ=Sogd. δrω"n, Gr. θρόανα.

(이것은 또한 그가 *-r 의 定立을 拒否하는 根據이기도 하다.)

25. 긔러기(雁) : 鯕

鯕는 小雁을 뜻하는 字로서 *ki̯əg 으로 遡及할 수 있는 字다. '긔러기'의 'ㄹ'이 中國語에 들어가면서 *-r- 또는 *-l- 介母化하여 消滅되었다고 할지, *-rg 또는 *-lg 를 이루는 것이 無理하여 *-g 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좋을지는 判斷하기 어려우나 可能한 對應例로 採擇될 수 있을 것 같다.

26. 작-('자갈'에서) : 石

石 *d̂i̯ak/ži̯äk/shï

石의 再構形은 '돌'을 뜻하는 알타이語的 語詞 *tïlaγun 을 想起케 해 준다. 여기서 前條에서 생각했던 것과 같이 -l-이 mouillure 를 일으킨다면 *d̂i̯ak 에 이르게 될 것이다.

國語는 알타이語系의 語詞 *tïlaγun 을 '돌'로 發展시키는 反面, 中國語의 古音을 다시 받아서 '작+알'로 '자갈'(礫)을 生成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筆者의 推定이다.

27. 돍(鷄) : 鳥

'닭'을 '새'라는 槪念의 單語와 對應시키는 것은 音相面에서의 無理만 없다면, 可能한 일이라 생각한다. 日本語의 tori(鳥)와의 比較와도 같은 것인데, 닭을 가리키는 日本語 語詞의 生成을 보아서도 妥當한 態度임을 알 수 있다.

鳥는 *tiôg/tieu:/niao bird

여기서 'ㄹ'의 'ㄹ'이 또 問題된다. 한편

佳는 *t̂i̯wər/tświ/chuei

이것은 反對로 -r 만을 보인다. 이렇게 두 가지 語形이 있는 것은 한결 우리의 對應에 有利하다.

28. ᄀᆞᄇᆞᆯ : 郡

이것은 Pulleyblank[22]가 Skillend 敎授로부터의 助言을 받았음을 附記하면서, 末音 -n 에 力點을 두고 提示한 對應인데, 妥當한 例라 생각되기에 여기 採擇한다. 그의 轉寫音은 郡 : gi̯uən 인데 거기서의 唇音性을 維持하려는 努力이 v 即 우리의 'ㅂ'로 나타난 것이라는

[22] Ibid, p. 229.

Skillend의 見解도 紹介하고 있다(이 唇音性은 Karlgren에 따른다면 *-w-가 될 것이다).

Skillend의 이 見解는 적지 않이 示唆的이니, 다음 몇개의 對應例를 說明하는 데 잘 어울린다.

29. 수불(酒) : 水

水 *śi̯wər/śui:/shuei

意味面에서 弱干의 距離가 있기는 하지만, 재미 있는 對應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日本語의 siru(汁)은 中間의 唇音 要素를 無視한데서 온 語形일 듯하다.

30. 이불- : 萎

이 한쌍의 動詞도 中間의 唇音要素를 中心으로 觀察할 때 매우 재미 있는 對應例가 된다.

萎 *ˋi̯war/ˋjwie/wei to wither

31. 거붑 : 龜

위의 것들과 같은 部類에 屬하나 中間에 낀 子音이 "ㅸ"이 아니라 "ㅂ"이라는 差異가 있다. 前者의 것들이 中國語로부터의 借用인 反面 이 語詞의 경우는 反對로 中國語가 借用해 간 結果라고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ki̯wəg/kjwi/kuei

32. 물 : 馬

이것은 말의 原產地가 어디냐, 어떻게 우리가 말을 가지게 되었는가의 問題가 있지만, 中國語의 *-r- 介母를 論하며 引用되는 버마語 mraŋ(馬)와의 關聯下에서 中國語를 中間宿主的 存在로 생각하는 것이 可能할 듯하다. 蒙古語나 滿洲語가 morin이라는 語形을 가지고 있으니까, 事情이 單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間接的이나마 中國語의 '馬'를 關聯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土耳其語는 at라는 다른 系統의 語詞를 가지고 있음은 注目할 만하다).

蒙古語로 들어가는 過程에서였건, 우리말에 直接 들어 오는 길에서였건 알타이語의 音韻構造上 -ra의 轉位는 不可避했겠고, 母音 a가 先行하는 m에 一種의 同化를 입었을 것도 推定할 수 있다.

34. 되(升) : 斗

35. 뵈 : 布

이 두 語詞의 경우는 中國音에 없는 -i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名詞形 接尾辭 -i로 解釋된다.

斗 *tu/teu:/tou bushel, a measure

布 *pwo/puo-/pu cloth

斗의 경우에는 單位上의 差異가 있지만, '되다'라는 動詞를 派生시키고 있을만큼(자 : 재

[23] 董同龢는 -b에 對하여는 **b로 表記하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오랜 存在로 우리의 射程밖에 있는 것일까.

다 에 類似) "되"가 基本的인 單語가 되어 있는 點으로 보아 그것이 나타내는 數量에 拘碍될 것은 없다. '말'에 밀려 '升'이라는 單位를 나타냈던듯, 合이 '홉'이라는 化石音을 가진 反面 '升'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

35. 벼(稻) : 稗

日本語의 hie(稗)와 함께 생각할 對應例인데, 母音의 轉位를 推定시킨다.

稗 *b'eg/b'ai-/pai weed resembling grain

실상 먼 古代에는 稗도 좋은 穀食 노릇을 했을 것 같다. 中國語에서도 稗字와 粺(fine rice)사이에 發音의 差異가 없다.

36. 녀믜- : 衽, 袵

두 字 다같이 *ńiəm 으로 遡及되는 字로 Karlgren 이 'skirts of robe, flaps'라 하고 있다. 그 '념'에 轉成語尾가 붙은 것이 '녀믜다'가 된듯하다.

Ⅲ

지금까지 考察해 온 語詞들을 되돌아 보며, 觀察된 結果들을 대충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아진다.

1. 첫째 末音에 있어, 國語에 忠實히 反映되고 있는 것으로 *-g 와 *-r 을 들 수 있다. 觀察된 語詞 안에서는 *-b 의 痕跡을 볼 수가 없고, *-d 는 다른 問題에 흐리어 그것대로의 對應은 세우기 어려웠다.

2. 去聲의 源泉으로 생각되는 *-s 를 反映하는 例들이 몇 單語에서 發見되는 것이 반가웠다.

3. *-k 가 國語에 받아 들여지면서 -h 로 부서진 것은 興味 있는 現象이다. 特히 바로 위에서 言及한 *-g 와의 對照가 印象的이다.

4. *-n 이 -r 로 보이는 것도 興味있는 對應이다.

5. 비록 單一例에 그쳤지만 *-m(>ŋ)을 熊字를 通해서 確認한 것도 意義있는 일이다.

6. 頭音에 對해서는 *d̂ 가 'ㅈ'으로 받아진 것을 確認한 셈이다.(現行 漢字音에서는 ㅅ이 되는데)

7. 邪母의 字들이 心母의 字들과 같이 "ㅅ"에 對立하는데 對하여 日母의 頭音이 "ㅿ"로 나타나는 것은 "ㅿ"의 音韻體系上에서의 位置를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8. 母音들에 對해서 論하기에는 資料의 量이 너무 不足하나, 唇音 要素가 "ㅸ"로 받아들여 진듯한 印象을 주는 例들은 注目할만 하다.

9. 借用語의 授受에 있어서 單音節語가 二音節語가 되기도 하고 二音節의 單語가 單音節로 縮約된 듯한 例들이 보였다.

그러나 이 作業을 通해서 問題들을 解決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通하여 많은 複雜한 問題들을 提起했다고 말하는 것이 좀더 妥當할는지 모르겠다.

40 未滿의 對應 樹立도 그 自體의 成敗를 떠나서, 古代國語史 開拓의 새 方途를 模索해 본데 그 本來의 意義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Synopsis>

Linguistic Contact of Korean with Chinese in the Early Stages

Wanjin Kim

The present study is, in its nature, a preliminary exploration of a new field rather than a thorough investigation of the phenomenon shown by the title of this paper. The terms such as borrowing and loan-words are intentionally avoided on the ground that although most of the word items dealt here are undoubtedly borrowings from Chinese, some others may have followed the opposite direction. The so-called Sino-Korean words, though abundant in Modern Korean, are out of the present concern here. The period covered by *the early stages* is the one with unknown breadth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Sino-Korean sound values for Chinese characters, presumably in Ancient Korean.

The following pairs of Korean and Chinese words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the present study:

N.B. Mod. K., MK., and AK. for Modern Korean, Middle Korean, and Ancient Korean, Anc. Chin. and Arc. Chin. for Ancient Chinese and Archaic Chinese, respectively.

1. MK. AK. *püt'je* 'Buddha': Anc. Chin. *pjuətt'a* 佛陀 id <Skr. *Buddha*.
2. MK. *hʌjŋtjek* 'one's achievement': Anc. Chin. *γang tsjɛk* 行跡 id.
3. MK. *ček, čej* 'time': Arc. Chin. **ḍi̯əg* 時 id.
4. Mod. Kor. *sək* in *čipseki* 'straw sandal': Anc. Chin. **si̯ĕg* 屣 'sandal'.
5. MK. *kjekči* 'wooden sandal': Arc. Chin. **kiok* Anc. Chin. *Ki̯ak* 履 'straw sandal'.
6. MK. *čah* 'measure': Arc. Chin. *î'i̯ak* Anc. Chin. *t'si̯äk* 尺 id.
7. MK. *sjuh* 'vulgar, layman': Arc. Chin. **dzi̯uk* Anc. Chin. *zi̯wok* 俗 id.
8. MK. *tjeh* 'flute': Anc. Chin. *d'iek* 笛 id.
9. MK. *zjuh* 'mattress': Anc. Chin. *ńźjuok* 褥 id.
10. MK. *tjer* 'Buddhist temple': Arc. Chin. **tier* 邸 'lodging'.

11. MK. *jej* AK. *jeri* 'Japan, Japanese': Arc. Chin. **iwăr* Anc. Chin **jwie* 倭 id.
12. MK. *sar* 'arrow': Arc. Chin. **śi̯ər* 矢 id.
13. MK. *čer-* 'to be salted, to be pickled',
    čes<**čers* 'pickled fish or clam':
    Arc. Chin. **tsiər* 鼂 'to pickle',
    Arc. Chin. **tsiər* 齍 'pickled food'.
14. MK. *čer* 'salutation': Arc. Chin. **îiər* 祗 'to reverence'.
15. MK. *tuski 'hare'*: Arc. Chin. *to (<**t'os* with final *-s* because of its departing tone) 兎 id.
16. MK. *kas 'mustard plant'*: Arc. Chin. **kâd *kăds* or **kădz* 芥 id.
17. MK. *kʌz 'boundary'*: Arc. Chin. **kâd*<**kâds* or **kâdz* 界 id.
18. MK. *püt* 'writing pencil': Arc. Chin. **pliet* Anc. Chin. *piet* 筆 id.
19. MK. *mek* 'ink-stick': Arc. Chin. Anc. Chin. *mək* 墨 id.
20, MK. *ček- 'to record'*: Arc. Chin. **îi̯eg* 志, 誌 id.
21. MK. *tak* 'paper-mulberry tree': Arc. Chin. **to*<**tog* 楮 id.
22. MK. *sə-* 'to write': Arc. Chin. **śi̯io* 書 id.
23. MK. *kum* AK. *kuma* 'bear': Arc. Chin. **gi̯um* 熊 id.
24. MK. *keüj* AK. *kerü* 'goose': Arc. Chn. **ngan* 雁 'wild goose'.
25. MK. *kəjreki* 'wild goose': Arc. Chin. **ki̯əg* 鯕 'small wild goose'.
26. Mod. Kor. *čak-* in *čakar* 'gravel': Arc. Chin. *ḍi̯ak* Anc. Chin. *źi̯äk* 石 'stone'.
27. MK. *tʌrk* 'chicken': Arc. Chin. **tiəg* 鳥 'bird'.
28. MK. *kʌβʌr* 'county': Anc. Chin. **gi̯uən* 郡 id.
29. MK. *süβər* 'liquor': Anc. Chin. **śi̯wər* 水 'water'.
30. MK. *iβər-* 'to wither': Anc. Chin. **iwăr* 萎 id.
31. MK. *kepüp* 'turtle': Anc. Chin. *ki̯wəg* 龜 id.
32. MK. *mʌr* 'horse': Anc. Chin. *ma* 馬 id. cf.Burmese *mraŋ* id.
33. MK. *tuj* 'one tenth of a bushel, a measure': Arc. Chin. **tu* 斗 'bushel'
34. MK. *puj* 'hemp cloth': Arc. Chin. **pwo* 布 'cloth'.
35. MK. *pje* 'rice grain, rice plant': Arc. Chin. **b'eg* Anc. Chin. *b'ai* 稗 'weed resembling grain'.
36. MK. *njeməj-* 'to adjust the neck-hand of one's clothes or the flaps of one's robe': Arc. Chin. **ńi̯əm* 衽 'skirts of robe. flaps'.

Provided that the above-listed etymologies are acceptable, several observations could be made for the phonology of Ancient Korean or Proto-Korean.

Final '*k*'s of the Chinese loan-words in Ancient Korean were broken into '*h*'s, wheras, final '*g*'s in the Archaic Chinese words were rendered into '*k*'s in Ancient Korean.

Final '*r*'s in the Archaic Chinese were reflected as such in some Korean words. The controversy on the reconstruction of *-r or *-δ for Archaic Chinese would be immaterial for this problem.

The final '*s*'s, considered as the resource of departing tone, are found in the corresponding Korean forms.

It is remarkable that Korean *z*- corresponds only to Chinese ńź-, not to Chinese *z*- and so forth.

Some two-syllable words in Korean correspond to the monosyllabic ones in Chinese.

With the above-listed materials, it is rather difficult to draw any novel conclusion on the vocalism of Ancient Korean.

Above all, we are reminded that Chinese people have been the close neighbors for Koreans, perhaps, since the time immemorable.